

중흥건설·부영·한전·금호아시아나·금호석화

대기업 65개 중 광주·전남에 5개

자산 5조이상 상호출자제한...중흥건설 2년 연속 포함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중흥건설과 부영, 한국전력공사, 금호아시아나, 금호석유화학 등 광주·전남 관련 기업 5곳이 포함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공개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모두 65개로 지난해보다 4개 늘었다. 대기업집단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을 지정한다. 여기에 포함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눈에 띄는 기업은 중흥건설이다. 중흥건설은 지난해 광주 건설업체로서는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는데 올해도 지정됐다. 이 회사는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지 1년 만에 자산총액이 5조6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으로 늘었

다. 산총액 순위도 59위에서 50위로 9단계나 올랐다. 계열사는 중흥주택, 시티건설, 나주관광개발 등 43개사에서 6개사가 늘어난 49개사로 집계됐다.

자본총액은 2조190억원, 부채총액은 5조5840억원으로 자본총액대비 부채비율은 276%이다. 중흥건설의 부채비율은 임대주택의 자산이 회사 부채로 잡혔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계열사의 매출액은 4조5690억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6130억원에 달했다. 특히 중흥건설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액은 지난해 1조5597억원으로 전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2조447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금지되고 대기업집단 지정 후 2년의 유예기간에 모두 없애야 해 중흥건설이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또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지난해 금호석유화학이 계열사에서 분리되면서 25위에서 28위로 3단계 하락했다. 자산총액도 18조8000억원에서 15조2460억원으로 줄었다. 계열회사는 금호기업, 금호고속,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 24개사로 지난해보다 2개사가 줄었다.

자본총액은 3조3440억원, 부채총액은 11조9000억원으로 자본총액대비 부채비율이 355%이다. 전체 계열사 매출액은 10조6400억원, 당기 순이익은 13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로부터 분리되고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자산총액 5조1400억원, 부채총액 2조8560억원으로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은 125%이다. 계열회사는 금호미쓰이화학과 피엔피화학, 폴리켄, 철도솔라 등 10개사다.

■ 광주전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현황

순위	기업 집단명	동일인	계열 회사수	자산총액 (십억원)
3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27	208.286
21	부영	이종근	18	20.434
28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24	15.246
50	중흥건설	정창선	49	7.603
64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10	5.14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부영은 자산총액 20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단계가 오른 21위이다.

부영의 부채총액은 13조4000억원으로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은 190%이다.

전체 계열사의 매출액은 2조200억원 당기 순이익은 2670억원, 계열회사는 부영주택, 남광건설, 무주덕유산리조트 등 18개사이다.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은 기업집단 순위가 삼성, 현대자동차에 이은 3위이다.

자산총액은 208조2860억원으로 자본총액 98조2260억원 부채총액 110조6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12%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집단의 소유지분 현황과 출자 현황을 분석해 내부지분·순환출자·내부거래·채무보증·지배구조 현황 등을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73.89 (+2.57)
- ↑ 금리 (국고채 3년) 1.47% (+0.01)
- ↑ 코스닥 697.13 (+3.10)
- ↓ 환율 (USD) 1151.40원 (-4.70)

특수 건축물 점검에 외부전문가 투입

익산국토청, 2년간 점검지원단 운영 교량 등 안전진단

익산국토청이 특수공법이 적용된 해상교량과 21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점검에 외부전문가를 투입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하대성)은 7일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점검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지원단은 특수건설공사의 품질·

안전·구조·시공분야별 실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점검지원단은 4월부터 2년간 호남지역 특수교량과 21층 이상 건축물 등 총 20개 현장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 재해 위험성, 건설자재 적합성, 시공공법 적용성 등을 중점 점검하고, 설계·시공과정에서 품질·구조 등 기술지원 임무도 수행한다. /김대성기자 bigkim@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25일까지

법인사업자 78만명 대상

국세청은 1~3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오는 25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78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이 늘었다.

이번 예정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210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같은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개인인 내야 하는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작년 7~12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한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차례(1·4·7·10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차례(1·7월) 예정신고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4월과 10월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세액을 통보받는다.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가 지연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 등이 신고기한에 앞

서 오는 20일까지 한금신청을 하면 부당환급 협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달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부가세 예정신고는 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시에는 수수료 1%가 붙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및 유형별로 항목을 세분화해 총 47개 항목의 과세 자료를 8만명의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했다.

또 사후검증 및 세부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 유형과 항목에 대한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문으로 발송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분석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수준이 하락했거나, 사전 안내된 사항을 신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탈루 혐의가 큰 경우를 골라내 세부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보, 中企 지원 '광주은행 협약보험' 출시

신용보증기금은 광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광주은행 협약보험'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광주은행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채권보험을 10% 할인된 보험료로 지원한다.

광주은행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기업자금대출을 이용하면

금리를 우대해준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신보가 보장해주는 공적보험제도다.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가 부도가 나도 신보가 보험

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연체부도확률이 낮아진다. /최재호기자 lion@



7일 광주시 서구 차평동 마린커피점에서 열린 기아차 '니로(NIRO)' 광주 신차 발표회에서 이원병 기아차 광주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니로(NIRO)'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소형 SUV '기아 니로' 상큼한 출발

하루 평균 150대 판매...출시 열흘만에 2500대 판매

국내 최초 소형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기아자동차의 '니로'가 출시 초반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기아차는 7일 W호텔에서 열린 니로 미디어 시승회에서 지난달 29일 출시된 니로가 2500대 팔렸다고 밝혔다.

김창식 기아차 국내영업본부 부사장은 "니로가 계약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전 계약 1500대를 시작으로 일평균 150여대를 기록하며 누적 계약이 2500대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험하고 싶어하는 고객 문의가 많다"면서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소형 하이브리드 SUV의 상품성과 주행 성능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보원 기아차 국내마케팅실 이사는 "지난달 29일 출시를 기점으로 1000대가 팔렸으며 월간으로 따지면 3300여대, 연간으로 4만여대 수준이 판매될 것"이라며 "아직 본격적으로 매장에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가히 폭발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니로 구매층의 75%가 남성이고 20~30대 비중이 48%에 달했다. 트림별로는 프레스티지 비중이 48%에 달했고 최고가인 노블레스 비중도 33.7%를 차지했다. 선택 사양 중에서는 7인치 내비게이션과 18인치 휠 선택이 가장 많았다.

니로는 기아차가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을 집약해 처음 선보이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소형 SUV다. 국내 SUV 중 최고 수준인 19.5km의 연비가 돋보인다. 취득세 감면, 보조금 등의 혜택을 통한 높은 가격경쟁력도 갖췄다. 동급 최대 속도로 여유로운 실내와 넉넉한 트렁크 용량을 확보했고 7에어백, 차선이탈경보,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등 첨단 안전사양 등을 탑재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금형인 축제 한마당

내일 평동산단 금형센터

광주 지역 금형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3회 금형인의 날 행사'가 9일 평동산단 내 하이테크 금형센터에서 한국금형산업진흥회(회장 김성봉)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 이상배 전락산업본부장, 금형산업 임직원 및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유공자 표창, 회원사별 게임, 화합의 장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유공자 표창부문에 올해의 금형인에 아람씨에스 이규택 대표, 지역 경제발전유공자(광주광역시상장)에 씨엔티 유시봉 대표와 세아인더스 김교신 대표, 우수경영인에 인아정밀 백희중 대표, 모범근로자에 우성정공 김선국 공장장 등 15명이 선정돼 표창을 받는다.

김성봉 한국금형산업진흥회 회장은 "지역 금형산업이 전방산업인 가전산업의 위축으로 내수시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활발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며 "수출시장 개척과 확대를 위해 5월에 미국 디트로이트에 북미지역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북미시장 개척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10억(일시불 대폭 조정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산수유/벚꽃축제,수학여행,여름휴가, 등산객 등등 리모델링 (4억)후 연 5억 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건물 중 701호(7층전체) 130평(실평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용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3백만원 임대중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